



사우디-이란의 긴장관계 대변한 MBS 사망 루머

▶ 4월 말부터 해외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사우디 왕세자 MBS의 사망루머는 결국 거짓으로 확인되었음. 이를 통해 최근 사우디-이란의 높아진 긴장관계 확인 됨. 2018년 지정학적 리스크 따른 유가강세도 이어질 듯

사우디 왕세자 MBS의 사망설을 보도하는 이란 언론들

Iranian Media Speculates About Possible Death of Saudi Crown Prince

The apparent disappearance of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from the public eye has led several Iranian media outlets to wonder if one of the most powerful men in the kingdom might've been killed during an attempted coup last month.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was allegedly hit by two bullets during the April 21 attack on the royal palace in Riyadh and may actually be dead as he has not appeared in public since the incident, Kayhan newspaper reports citing "a secret service report sent to the senior officials of an unnamed Arab state." (하략)

자료 : sputniknews (2018년 5월 17일), SK증권

살아있는 MBS,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이란

'쿠데타 사망설' 돌던 사우디 왕세자 4주 만에 등장



자료 : 연합뉴스(2018년 5월 23일), SK증권

- 세간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사우디의 왕세자이자 스트롱맨 시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Mr. Everything Mohammed Bin Salman(이하 MBS)의 피격설이죠

- 지난 4월 21일 몇몇 해외 언론은 리야드(Riyadh)에 있는 사우디 왕궁에서 총성 2발이 울렸고, 쿠데타로 보이는 이 총격에 의해서 MBS가 사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 그렇지만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총성은 왕궁의 경호원이 쏜 것에 의해 들린 것이고, 이유는 드론 하나가 영지 내로 너무 가까이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말이죠

- 흥미로운 것은, 이 보도를 대다수 사우디의 숙적이자 최근 핵 제재 이슈로 불 타오를 만큼 타오른 이란 측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 애초에 보도 자체가 자극적일 뿐 별 다른 근거는 없었습니다. ① 4월 28일 사우디 큐디야(Qiddiya)에 있었던 테마파크(수영장과 레이싱트랙 등이 포함된) 개장식에 살만 국왕과 함께 MBS가 참석을 한 것이 사진으로 포착되었고, ② 5월 18일에는 아부다비 왕자, 바레인 국왕, 이집트 대통령과 캡 모자를 쓴 채 친목모임을 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가 되었으니까요

- 그리고 결국 5월 22일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공식석상에서의 사진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루머로 일단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 이 일은 최근 긴장관계가 높아진 사우디-이란의 정세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흥미로운 부분이라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2018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강세'라는 의견 만큼은 계속 유지해도 될 듯 싶습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건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